



## ■ 에이즈 퇴치운동에 감염자 참여해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들과 에이즈 유발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세계 에이즈 퇴치운동과 에이즈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위한 전략개발에 불가피하게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유엔 에이즈 대책 책임자인 피터 파이어트씨가 6일 촉구했다.

파이어트씨는 에이즈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한 5일간의 국제회의의 개막식에서 첫 공개 정책성명을 통해 세계는 에이즈에서 해방될 방안이 곧 발견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에이즈학회장을 지낸 파이어트씨는 “에이즈는 과학이 하룻밤새 제압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며 그 백신이나 치료법이 적어도 금세기안에 출현할 전망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밝히고 “에이즈에 도전하는 보다 좋은 방안을 세계가 찾고 있어 에이즈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에이즈 대책 실행계획에 에이즈 환자들과 HIV 감염자들을 문제설정과 대책의 구체화에 전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들의 참여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참

여시키느냐라고 말했다.

타보 르베키 남아공화국 부통령은 에이즈가 세계의 사회·경제적 번영을 성취하는데 가장 불길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이즈에 대한 국제적 전략이 백신개발·치료법 연구를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실제적 대책과 연계하는 다면적인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다른 대표들의 발언을 강조했다.

남아공과 다른 나라 대표들은 남아공의 에이즈 및 HIV 감염규모에 서로 엇갈리는 시사를 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아공의 감염규모가 우간다, 잠비아 및 말라위와 같은 북쪽 나라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쪽은 감염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믿어진다.

느코사자나 주마 남아공보건장관은 에이즈를 퇴치하는 열쇠는 의술과 과학에 있지 않고 에이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있다고 말했다. ㉔

